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여름 찬양 기도회

얼바인한인장로교회

'일어나라, 기뻐하라' 는 주제의 여름 찬양 기도회가 얼바인한인장로교회(17702 Cowan, Irvine, CA 92614)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는 오는 8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이 행사에서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하는 임창수 목사(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위축된 시기에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기쁨이 찬양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과 교회들 위에 치유,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중보기도를 하고자 한다. 특히 소속된 교회나 교단에 관계 없이 자신과 이 땅의 회복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고 밝혔다.

▶ 문의: (714) 715-5999

장학생 선발

오렌지중앙교회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오렌지중앙교회(담임목사 유원선, 13522 Goldenwest St, Westminster, CA 92683)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올해는 전국의 2년제나 4년제 대학 또는 신학대학원 재학생과 올 가을 학기 대입 예정자이며 총 10명을 선발해 1인당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한국어 또는 영어), 신앙 간증서(한국어 또는 영어), 추천서(목회자 및 교수 각 1부), 성적 증명서등이다. 접수 기한은 오는 8월 14일이며,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이 날짜까지 장학위원회에 이메일(okec.scholarship@gmail.com)로 보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오는 8월 31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오렌지중앙교회 홈페이지(orangechurch.org)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okec.scholarship@gmail.com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원한다 (요4:14)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사랑을 흡수함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면 그 생명은 시들어가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이며 생명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건설이며 미움은 파괴입니다. 사랑이란 벽돌을 하나씩 올려서 집을 짓는 것이며 미움과 분노는 지어지고 있는 집을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가슴 속에 깊이 담가두고 보존한다고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쓰면 쓸수록 나오는 것입니다. 기계는 쓸수록 망가지지만 사람은 쓸수록 발전하고 쓰지 않으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아끼는 사람이 사랑의 측면에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음속에서 넘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14).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7:37,38).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생수, 진리의 생수, 기쁨의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봅니다.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한다.

사랑이란 잃었던 시력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요, 그 무관심은 사랑이 없기 때문일진대, 사랑은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좀 더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 내가 감사하고 높이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이란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듯 사랑의 빛을 밝혀 세상을 환히 비추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사랑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받기만 하려는 세상의 헛된 사랑과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에는 항상 갈증이 따르지만 주는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받는 사랑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이기심으로 인한 온갖 상처로 마음이 비뚤어진 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모든 곳에 나아가셔서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람은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조그만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 더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이 점점 더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마음,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섬기지 않고, 은사를 받았으나 방치하여 녹슨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받은 은혜 가운데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활용하거나 나누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어 가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야기 하나, 작은 일 하나, 작은 만남 하나를 아름답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아름다운 기적이 잉태되고 빛나는 삶을 약속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기적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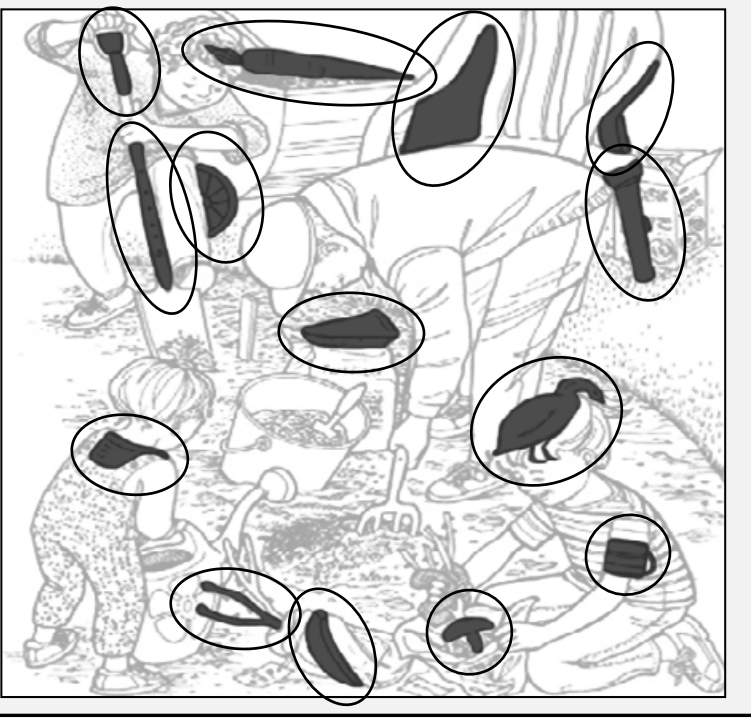
-서정호 목사-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